

김민선 소장에게 듣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내일

# 융합, 소통을 통한 더하기



융합은 현대 시대의 키워드다. 전혀 관계없는 분야가 만나 긍정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과정을 일컫는 ‘융합’은, 기존에 없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은 융합에 대해 ‘소통을 통한 더하기’라고 이야기 했다. 단순히 전혀 다른 무엇이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깊숙이 자리 잡는 게 핵심이라는 의미였다. 융합 산업의 소통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 융합으로 탄생한 기술과 연구결과가 시장에 빨리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김민선 소장. 그녀로부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Q. 현재 산업계의 화두인 ‘융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융합은 기존에 없던 단어가 아닌데, 사람마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모두 다릅니다. 산업융합촉진법상에는 산업융합에 대해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소통을 통한 더하기’가 아닌가요. 여기서 소통은 ‘수단’이죠. 무엇인가 새로 ‘하러’면 서로 만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 없이는 아무리 많은 분야의 사람 혹은 기술을 모아봐도 일이 진척이 안돼요. 즉, 수단은 소통이고 결과는 더하기라고 보는 거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Q. 센터의 설립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센터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융합의 실질적 역할 수행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국내 산업융합 활

성화’죠. 이에 대한 센터의 역할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축’, 또 하나는 ‘기업의 축’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산업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기획해 제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산업융합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기기 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미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센터 운영 소감과 소장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실무단에서 일하는 것과 소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직원들에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해 센터원들 모두 함